

01

FTA 포커스



01. FTA 포커스

I.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FTA 전문기관의 역할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 김기영

1) 통상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FTA 무역 현주소

FTA 중심 무역질서의 재편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제18차 TPP협상 완료(2013.7.20~25), 미국·EU FTA 협상 개시(2013.7.8), 한·중 FTA 협상재개 및 일본의 공격적 FTA 참여에 따라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블록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EU는 전세계 GDP 규모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서 양국간 FTA가 체결되면 글로벌 교역량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시대가 출범하게 된다.

국내 FTA 활용 동향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FTA 이행 10년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2011년 7월 1일 한·EU FTA 발효와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를 기점으로 거대경제권과의 본격적인 FTA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FTA 이행의 본 궤도에 올라있는 현시점에도 FTA 활용 환경과 그 활용 수준에 대하여는 좀 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원산지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한 '주요 민원 빅데이터 수집을 통한 FTA 활용동향 분석'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 CEO들의 FTA 활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더불어 기업들은 FTA 활용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원산지확인서와 관련한 기업정보 유출의 우려,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준비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FTA 활용의 3대 중추

(원산지판정 / 원산지 관리 / 원산지 검증)

FTA 허브 국가로의 도약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중 FTA가 완료되면 그 이후 FTA무역은 우리나라 교역의 7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FTA 적용 특혜수출입건수는 현재 약 180만 건에서 5년 후에는 약 550만 건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향후에는 FTA 무역이 전체교역의 대부분이 될 것으로 효과적인 FTA 이행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역증진과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아울러 한·중 FTA 협상이 마무리 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과 같은 세계 3대 거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아시아 유일의 국가가 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인도 및 ASEAN과 같은 비중 있는 개도국들과도 FTA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므로 개도국과는 원재료 조달이나 원료가공무역을 중심으로, 선진국과는 상호 보완적 무역을 중심으로 'FTA 허브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FTA 활용 단계별 중요성

현재 우리는 미래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FTA 무역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모든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고 그 결과 국민들이 FTA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FTA 활용 단계별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FTA 활용의 단계별 핵심요소인 원산지 판정,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 검증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최대의 FTA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FTA 활용의 첫 단계는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바탕으로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받는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각 FTA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복잡다양하고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와 일부 원가 회계 지식까지 필요로 하고 있어 기업들이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FTA 활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원산지 관리 또한 중요하다. 각 협정별로 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FTA 협정은 기본적으로 5년간 원산지증명서를 거래당사자들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FTA 활용이 원산지 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정 후 '원산지 관리' 또한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원산지 증명을 뒷받침하는 관련 서류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 역시 FTA 활용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FTA 활용은 '원산지 검증'으로 최종 마무리된다. 우리 수출품에 대한 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요청은 2011년 84건, 2012년 229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는 211건으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특혜수혜를 향유한 기업들의 철저한 원산지 검증 대비가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원산지 검증은 단순히 FTA 혜택의 문제만으로 귀결되지 않고 통상마찰의 예방이나 공정무역 실현 등 국가의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3) FTA 이행의 든든한 조력자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설립배경과 취지

정보원은 2009년 관세청으로부터 FTA 원산지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설립된 FTA 원산지 분야의 유일한 전문기관이다. 정보원은 본격적인 FTA 활용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관 및 민간에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익보호와 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주요 업무

정보원은 원산지 교육을 통해 '원산지관리사' 등 전문가 양성, 중소기업 적합 원산지 관리프로그램인 'FTA-PASS' 개발과 보급, FTA 관세행정지원을 위한 원산지 정보 수집 및 분석, 인증수출자 예비조사 지원, FTA 원산지 정책방향 및 활용효과 분석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FTA 전문인력 양성 교육

원산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원산지관리사'는 2010년 민간자격시험으로 시작하여 2012년 12월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증받아 현재까지 원산지관리 전문가들을 1,184명 배출, 기업들의 원산지 관리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또한 관세사들이 FTA 이행 초기 새로운 무역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세사 FTA 컨설팅 교육을 진행하였다. 향후 정보원은 대학교 및 특성화 고교까지 전문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FTA 전문가를 양성하고 FTA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앞서나갈 계획이다.

원산지 관리시스템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정보원은 기업들이 체계화되고 간편한 전산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판정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FTA-PASS'를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자사의 ERP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FTA-PASS와 ERP 상호간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업간·정부간 FTA 서류 교환에 따른 FTA 무역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FTA 전자 문서 유통망'과 결합하여 더욱 편리한 원산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FTA 원산지 연구 및 인증·검증지원

정보원은 2009년 설립 이래로 FTA 상대국 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해서도 국가정보, 산업정보, 기업정보, 물품정보, 정책동향 등 전세계의 다양한 원산지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FTA 관세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보원은 인증수출자 심사를 위한 인증예비조사 및 원산지 검증예비조사 등을 통해 수출품의 원산지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품목분류, 각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석과 해설, 상대국의 FTA 이행제도, FTA 협정문상 쟁점에 대한 정책연구, FTA 활용 현황분석 등 다양한 전문연구들을 수행하여 FTA 시대 무역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4) FTA전문기관으로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역할

정보원은 사실상 FTA 무역이 미미하던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원산지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여 FTA 무역환경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왔다.

정보원이 FTA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에 따르면 현시점에서 효과적인 FTA 이행에 가장 큰 걸림돌은 제도적·시스템적 발판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을 적절히 활용할 수 없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FTA의 실익을 직접적으로 향유하는 수출입 기업들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원산지 관리능력이 어느 정도 배양되어 있다. 하지만 수출입기업들과 필연적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FTA의 직접적인 혜택이나 유인이 좀 더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밀한 제도적 지원도 더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기업들은 원산지 관리의 전문성을 축적할 재정과 인력이 부족하고 FTA의 실익을 직접적으로 향유하기 어려워 원산지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반면 수출입 대기업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내역을 신뢰하기 다소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다. 결국 FTA 활용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기반을 좀 더 튼튼히 할 수 있는 지원들이 필요한 것이다.

정보원은 우선 중소기업 CEO의 FTA에 대한 인식제고와 FTA 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필수교육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쟁의 논리만으로는 재정이나 인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성에 기반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정부기관이 지속적으로 이를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FTA 원산지 판정의 전문성과 원산지 관리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보완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FTA 전문기관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들이 '원산지 확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전에 원산지판정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원하여 준다면 중소기업으로서는 원산지 업무의 부담을 덜 수 있고 대기업으로서는 원산지 증명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미, 한·EU FTA를 통해 본격적인 FTA 이행단계에 돌입하였고 향후 한·중 FTA까지 더해지면 FTA 교역 규모가 더욱 확대 될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FTA 교역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효과적인 FTA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중소기업간의 상생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세계교역이 FTA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에 대비하여 전세계에 표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FTA 이행시스템을 마련하여 FTA 허브국가로서의 지위도 공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원은 FTA 활용 시스템의 발전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기업들이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우리나라가 FTA 허브국가가 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